

| 2021학년도 |

학교현장실습 후기집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채연 - 김해은혜학교

“

이번 실습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2주 간접실습+2주 직접실습으로 진행되었다. 간접실습 기간에는 연수를 듣는데, 은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강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15차시 정도의 연수를 3개 듣고, 간단한 시험을 친다. 이외 학교 폭력과 MBTI 등 여러 가지를 하며 간접실습 기간을 보냈다.

실습을 가기 전, 학교현장실습 강의 시간에 지도안과 연구수업지도안을 미리 작성하고 가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지도안을 작성해보려 했는데, 초등을 전공해 총 6학년 중 어떤 학년에 배정될지 몰라 고민하다 수업을 따로 계획하지 않고, OT를 다녀온 후에 어떤 수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 올해 김해은혜학교에서는 짧은 실습 기간을 고려하여 10개의 수업 중 5개는 도입-전개-마무리의 형식으로 간단히 계획하도록 하고, 나머지 5개의 수업은 4개는 약안, 1개는 세안(연구수업)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PBS(긍정적행동지원)를 한 페이지 내로 간단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구체적인 실습 과정은 배정된 반의 담임 선생님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OT 때 담임 선생님과 시간을 가지면 학생 특성, 지도서 받기, 수업할 과목, 기타 궁금한 점에 관해 물어보고, 번호를 받아서 이후 더 궁금했던 점에 대해 여쭙어보면 될 것 같다.

나는 5학년 1반에 배정되었고, 월요일 하루 참관을 한 후 바로 수업을 했다. 연구수업은 일정이 1주차 후반부에 변경되었는데, 실습생 중 첫 순서로 2주차 월요일 2교시로 배정되었다. 나는 내가 잘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할지부터 고민을 했는데,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 연구수업 전에 그 전 차시 수업을 해보거나 했던 수업 중 잘했던 수업(은혜학교는 가능했다고 함)을 연구수업으로 정하면 될 것 같다. 실습 전에 작년 후기집을 읽어보며 열심히 노력하되 수업을 잘하지 못해도 자책하지 말고, 피드백을 받으며 고쳐나가는 마인드로 실습에 임했기에 받았던 피드백들을 떠올리며 연구수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실습 중에는 수업계획, 연수, 실습 일지 등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밤을 계속 새우게 될 수도 있다.

”

김채연 - 김해은혜학교

“

지도안 작성이나 세안 작성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서 나는 참관한 선생님들의 지도안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자세한 부분은 담임 선생님에게 배웠다. 약안은 형식이 간단한 편이었다.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는 라포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강화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이상으로 실습 전에 미리 수업을 계획해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다양한 활동과 교구들을 찾아보고, 고민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많이 물어보고,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하여 돌이켜보았을 때 행복했던 실습으로 추억되길 바랍니다.

”

김은선 - 김해은혜학교

“

교생을 가기 전에는 왠지 모를 무서움과 더불어 교생을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내다가, 발대식날 동기들의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았을 때 ‘아내가 진짜 교생을 가는구나’라며 실감나고, 전체가 한명씩 돌아가며 한마디씩 말하는 것을 들으며 ‘사람은 다 같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서 무서움이 갈무리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교생 오티! ((김해 은혜학교에 갈 여러분~ 오티 준비물 : 실내화/필기구/깔끔한 정장차림/구두는 선택사항인데 어차피 학교안으로 들어가면 슬리퍼를 신어서 안보여요... 참고로 구두 저 혼자 신고 갔어여^^)) 그땐 간단히 어떻게 교생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고 대표들을 뽑아요. 그리고 자신이 실습하게 될 반 선생님들과의 두근두근 첫.만.남! 만나면 넘 떨려서 다들 조용하답니다. 이때가 중요한거 같아요. 이때 꼭 물어봐야 될 것 1. 학생들의 특성(표현언어*수용언어 어느 정도로 되는지/학생이 문제행동이 무엇이며 평소 어떻게 대처하는지/학생들이 소근육 발달 정도/학생의 등교시간-전 1교시가 첫 수업이었는데, 가수준을 믿었으나 수업 직전 학생이 1교시 한참 지나고부터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진 낫놓으면서 혼자 수업했던 것 같아요...꼭 질문하기) 2. 수업 과목의 분배 및 학생들의 수업 진도를 (근데 반마다 담임교사가 어느 요일 무슨과목/몇단원정해주는 반이 있는 반면 아예 너 하고 싶은 과목+단원 다해보세요 하는 반이 있어요.) 꼭 질문하기!! 그리고 무조건!!! 그것을 토대로 일단 수업 3~4개 정도는 꼭 짜기! 그래야 첫 수업 전에 한번 피드백 받을 수 있고, 기본 하루에 2개씩 수업하는데 그럴 때 얼른 지도안 수정하고 교구 준비(일단 교구를 만드려면 어떤 수업을 하는지, 문방구에서 뭐 살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및 수업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아님 가서 직전까지 교구만들게 될 수도...)) 교생에 들어가면 2주가 정말 정신없을 거예요. 연구수업은 3~4일 전까지 내가 정확히 어느 날 하는지 안정해지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미리 생각해 두면 좋을거 같아요. 또 수업을 할 때 최대한 목소리는 크게, 학생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아요.

”

김은선 - 김해은혜학교

“

ppt를 활용해서 시청각 영상 넣고 청각적 효과【제일 중요★★★★★】 넣고, 국어 수업에는 입뚫린 마스크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원 선생님들께 항상 깃듯이 대하는거 잊지 마세요. 아! 첫 날 담임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는데 그때 무슨과목/몇단원/ 주제/도입/전개/정리를 간단히 메모해주세요! 수업참관록 써야되는데 미뤄지면 기억이 안납니다. 다음으로 수업도 짝교사끼리 지도안 짤거 공유하거나 지도안 안짤 수업이면 앞의 내용 (무슨과목~정리) 서로 공유하면 나중에 참관록 쓸 때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교생이 끝나 있을거예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니, 다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

김태형 - 김해은혜학교

“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교생 후기를 봐어도 실제로 만나볼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성향의 아이들일 것이며, 직접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감을 남기자면 수업 실연을 위해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으로 설정 하였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수업을 40분간 진행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실습 전에 어떤 주제로 수업할 것인지 많이 생각해 두고 준비해가면 정신적으로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세요! 그게 제일 많이 배우고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하은 - 김해은혜학교

“

은혜학교로 교육실습을 나갔을 때 학생들이 내 수업을 제대로 들어 줄까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 현장관찰도 다녀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것 같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많이 낯설어하고 교생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도망쳐서 첫 날부터 어려움이 많았고, 코로나 덕에 실습기간이 단축되어 월요일 하루만 선생님들의 공개 수업을 관찰하고 화요일에 바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더 불안했던 것 같다. 학생들과 라포 형성도 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린 상태로 다음 날이 되었다. 하지만 금세 선생님의 손을 잡고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걱정이 가득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업무가 많으신 와중에 항상 우리의 수업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안부터 수업의 내용, 동선,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셔서 내 수업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었다. 물론 배운 것만큼 뽐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속이 상할 때도 있었고,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가를 수없이 되뇌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나뿐만 아니었기 때문에 동기들, 타 학교에서 온 교생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던 2주였다. 또한, 우리 학생들도 부족한 수업이지만 열심히 따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면 더욱 신나게 수업을 들어주는 학생들 덕에 더 열심히 수업을 계획하고 교구를 만들 수 있었다. 처음에는 불안하기만 했던 교육실습이 하루하루 기대가 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2주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욕심내지 않고 수업을 준비했다면 학생들도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이 되었을 것 같다는 후회가 있지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2주여서 보람찼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다.

”

김하은 - 김해은혜학교

“

내년에 교생을 가게 될 분들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3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후회 없이 써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업계획에 부담감 갖지 말고, 얼마나 될지 모르는 교생기간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쉬는 시간 중간 중간마다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실무원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마저도 얻어가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고, 더 나아서 실무원 선생님 대신 학생들의 수업이나 생활을 보조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공개수업들을 잘 관찰하면서 수업에 대해 배워나가는 등 많은 것을 얻어가는, 후회 없는 교생기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승연 - 김해은혜학교

“

원래는 4주간 배워야 하는 교생을 2주 만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오려니 적응이 되자마자 끝나버린 알차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4주 같은 2주였습니다.

한 달간 하는 교생이었으면 2주간 참관을 했어야 했겠지만 하루 만에 모든 참관을 하고, 적응할 시간도 없이 두 번째로 아이들을 만나던 날 바로 첫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 간은 내가 이렇게 해서 특수교사가 될 수 있을까 자괴감만 들고 저의 모자란 부분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차부터는 담임 선생님께서 지도해주신 부분을 하나씩 수업에 반영해 가면서 그래도 이번수업은 꽤나 괜찮았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감을 돋워주시기 위한 칭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달콤한 칭찬이었고, 그래도 특수교사 해볼 만하겠구나 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이 되는 2주차였습니다.

사실 학년도 모르고, 아이들 특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교생수업준비를 해갈까 하는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현장에 나가 교사가 될 것이라면 모든 학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또 여러 수준의 다양한 아이들이지만 수업에 쓸 수 있는 소재와 기법들은 미리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학년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지도서는 여러 번 미리 봐두면 좋을 것 같고, 꼭 교과서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학생들과 함께 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미리 생각해가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도 많이 썼고, 하루도 제대로 잔 날이 없었던 2주간이지만 특수교육과의 4년간의 모든 것을 적용하고 몸으로 체험할 소중한고도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생 가기 전 궁금했던 복장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꼭 구두나 단화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신발은 어차피 학교에 가면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구두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두가 불편하다면 검은색 단정한 운동화를 신고가 일찍 도착해서 실내화로 갈아 신으면 되고, 날이 맑은 날엔 실외로 워킹엔 런을 가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편한 바지를 입는 것이 좋고, 정장치마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류승연 - 김해은혜학교

“

교장선생님께서 여자도 갖추어 입기보단 편한 정장바지를 입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안 신던 구두를 신으니 발이 까지고 티눈도 생겨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운동화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슬랙스에 흰 셔츠만 준비되어 있다면, 굳이 정장과 구두를 살 필요 없습니다! 면접복장을 준비할 겸 미리 사두는 것도 좋긴 하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만 유지하면 될 듯합니다. (김해은혜학교 기준!)

그리고 수업을 못하는 것은 처음이니 당연하고, 교재교구랑 수업 준비만 열심히 해가도 지도 선생님들도 그 노력을 예쁘게 봐 주실 것이니 너무 기죽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온단 생각으로 잘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

”

이유정 - 김해은혜학교

66

모두가 그렇듯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교생 실습에 나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본교 코로나 확진자로 학교가 폐쇄된 상황이었기에 솔직한 마음으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일은 없겠지-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오티를 다녀왔고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틀이었다. 교과서와 학생 특성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계획을 작성했다. 주말에 짠 수업은 10개 중 6개. 탁월한 선택이었다.

시간이 있는 대로 수업계획안 써 가시길, 교과 재구성 시 수업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늘 내 수업 아니면 아이디어가 샘솟으니 친구들과 함께 의견공유 많이 하는 것 추천. 잡담하며 구구 만드는 시간에 수업 아이디어가 서너 개는 나오더라. 나는 교생 가기 전에 선배들의 교생 실습 후기집을 보진 않았고 교생 첫날 다녀와서 정독했는데, 하나같이 너무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이라고 하시기에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할 정도로 첫날, 이틀날은 힘들었던 것 같다. (첫날은 참관일, 이틀째에 첫 수업 2개) 아마 현장실습을 안나가봐서 일수도, 여러분은 우리보단 부담이 덜 할지도 모르겠다.

여튼 결론은 소중한 추억이 맞더라! 하는 것.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즐겁고 안 바쁘면 어색한 ... 그랬다. 마지막 날엔 학생들에게 선물도 주고 눈물겨운 안녕을 바랐지만 교생 송별회? 여튼 마치는 그 행사는 생각보다 늦게 마치니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다면 아침 조례 때 주시길. 흠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과 기억에 남는 일을 적으라 하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솔직히 그냥 하나하나 기억에 다 남으니 여러분도 즐거운 경험을 하고 오시고, 해주고 싶은 말은 개념과 인사성 열정을 챙겨 가시라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들 바쁘고 힘드니, 눈치껏 빠르빠리 행동하기! 그거면 반은 같 듯 싶다. 어느 누가 내 후기를 읽었을 진 몰라도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파이팅 하길 바란다.

99

전하민 - 김해은혜학교

“

처음 은혜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이 앞섰다. 우리 학교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수업이라는 형식으로 가르쳐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간 첫날에 짝교사가 배정되고, 교생담당 지도교사님도 결정되자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어색하게 시작된 교생실습기간의 첫날은 수업참관의 형태로 진행됐다. 내가 맡은 반은 중학교 1학년 반이었고, 그곳에서 지도교사님의 수업을 교실 뒤에서 참관했다. 그리고 다른 반으로 옮겨 다니며 여러 교생들과 함께 뒤에서 다른 현직 교사분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뒤에서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들도 보이고, 선생님들의 지도하시는 모습들도 눈에 잘 들어왔다. 느낀 점은 확실히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과 수업의 흐름이 한 눈에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섬세하게 학생들에게 여러 기법이나 지도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번 년도에는 코로나로 작년과 같이 2주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장 2일째부터 수업을 들어가야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 첫날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눈에 담아야 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인데, 수업을 짧거나 수업시간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말씀대로 쉬는 시간에도 최대한 붙어있으라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과 지도교사님이 교생실습실로 가있으라고도 하셨고, 실제로 수업준비를 하다보면 하루에 2번 수업을 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점심시간 같은 경우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면 확실히 학생들과 친해지고, 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둘째 날부터는 진짜 수업이 시작되는데 짝교생과 지도교사님이 참관하시고 40분을 수업하게 된다. 나는 첫날부터 2개의 수업이 잡혔는데 4교시와 5교시였다. 여기서 4교시의 경우 중학생은 급식 때문에 정규시간보다 10~15분 정도 일찍 수업을 마무리하고 준비를 해야 했다.

”

전하민 - 김해은혜학교

“

그래서 4교시의 경우 적당한 분량조절이 필요하고, 40분을 수업할 때 수업시연과 다르게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첫 수업에서 학습지를 비롯해서 약간은 수동적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지도교사님과 협의회를 하면서 활동적인 수업을 하면 좋다는 피드백을 듣고 다음 수업부터는 직접 붙이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수업들을 준비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피피티 자료도 효과음이나 효과를 넣는 것이 좋고, 자료도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해서 주는 것이 필요했고, 그렇게 했을 때 참여도와 학습도가 높았던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학급인원이 6명임에도 4명만 왔었는데, 각자의 특성과 수준이 다 달라서 다 다르게 자료를 제공해줬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도교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친절하게 답해주시다. 나는 일정이 뒤바뀌기도 해서 예정과 달리 우리 반만 가르쳤는데, 일정에 따라서 다른 학급에 수업을 하러 들어가기도 한다. 짝교생이나 다른 교생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았던 반이 아니라서 라포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보도 부족해서 조금 더 힘든 수업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반에 대한 준비도 지도교사님께 많이 물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 대신 하나의 수업 계획으로 그 반과 우리 반에서 2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참고로 은혜학교에서는 2일째부터 총 10번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 중 1번은 공개수업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현직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이 들어오시기도 한다.

수업은 다른 교생들은 여러 가지 과목을 시도해보고, 여러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사님이 수업 자체를 국어 과목의 한 단원만 지정해서 그 안에서 지도서를 보고 교육과정을 토대로 재구성해가면서 수업을 했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가져다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학생들 수준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성취기준을 가져다 스스로 재구성해서 외부에서 자료를 모아 만들어서 수업을 계속했었다. 한 단원 안에서 10번 정도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다.

”

전하민 - 김해은혜학교

“

그래도 내가 오기 전에 생각한 과목이나 수업 같은 것들을 해보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지도안 같은 경우 정말 꼼꼼히 더 질문하고 따져가면서 짜야 좋을 것 같다. 지도교사님마다 다르지만 수업을 지도안을 토대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이다.

수업 이외의 활동으로는 아침에 조례 이후 등교지도, 1교시에 참체시간에 학교 주변을 걷는 워킹앤런, 4교시 이후의 급식지도(반에서 하기도, 급식실 가기도), 하교지도 후 협의회와 종례 정도가 있던 것 같다. 간간히 강당에서 연수도 들었고, 임용 조연도 해주셨던 것 같다.

떠오르는 대로 쓰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썼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이는 분들마다 항상 인사하기, 학생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서 특성 파악하기, 자료 준비 열심히 해서 수업 만들기, 절대 시간 늦지 말기, 수업 시간 관리하기 정도가 있는 것 같다. 교생 기간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기 쉬운데, 몸 관리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혹시라도 교생 기간에 임용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생기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지 않을 이 기간을 좋은 경험으로 가져갔으면 한다.

”

정환빈 - 김해은혜학교

“

교생 실습 전, 4월 말부터 5월 초는 매일 설렘과 걱정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과 생활도 열심히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따라다니던 고민 중 하나는 내가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적성에 맞는지, 수업이나 학생 지도 등 다양한 교사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 수업 경험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교육 봉사나 현장 실습 등 현장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년의 꽃”이라고 불리는 교생 실습을 앞둔 저는 나를 선생님으로 불러줄 아이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러온 걱정이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김해 은혜학교에서의 교생 실습에서, 저는 남학생 5명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1학년 학급을 배정받았습니다. 새로 온 선생님이 신기하고, 반가워서 그랬는지 학생들은 모두 밝게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또는 부끄럽다면서 땀이 난 손바닥을 몇 번이고 자기 바지에 닦은 후에야 겨우 손을 내미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첫 수업 때는 새벽까지 수업 준비를 하고, 이마저도 긴장을 해서 그야말로 어쩔 줄 모르는 수업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어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현행 수준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용해 수업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능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누가 보고 있든,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기도 바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하며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실습은 2주 뿐이었던 터라, 바쁘게 둘째 주에는 연구 수업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날의 40분 수업은 저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기 전 선배 선생님들이 여러 번 강조하셨던 말, “연구 수업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그 말을 제가 또 전달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 수업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환빈 - 김해은혜학교

“

연구 수업은 평소보다 더 북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이 흐트러졌을 것이고, 평소답지 않은 학생들의 행동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 저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자책과 후회,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업에 대해 심층적인 피드백을 듣는 협의회 시간, 많이 혼나겠구나 싶어 긴장했던 저에게 뜻밖의 칭찬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점은 저의 콤플렉스였던 목소리를 “수업할 때 전달력 있고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라고 평가해주셨던 점입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서 그날 저녁 “선생님은 좋은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또 한참 그 화면을 보고 있었던 기억도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학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될 예비 교생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4주와 같은 2주를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생 선생님들은 밤을 새우거나 서너 시간 자고 출근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 몸살이 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미리 체력 관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개인의 행동이 학교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학교 바깥, 사회의 어디서든 적용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교생 선생님의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당 학교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또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셋째, 교생 전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 걱정을 사서 한다는 말도 듣던지라, 실습을 앞두고 여러 생각들이 오가면서 임용고시 공부도, 실습 준비도 무엇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스트레스만 받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교생실습이 여러 장면을 남겼듯이, 이후 실습을 하게 될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고 보람된, 후회 없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결 - 김해은혜학교

“

교생실습을 나가기 한 달 전부터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다. 처음 오티 가는 날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시간 금방 지나가겠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김해은혜학교로 들어가던 기억이 난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업 준비는 너무 힘들었다. 매일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하고 수업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준비한 수업을 잘 해내고 나면 40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일 수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여유롭게 수업 준비하고 싶다면 학생들이 재미있어할 것 같은 활동을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고 적응이 되었다고 느낄 때쯤 연구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업 준비에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다. 내 수업에 반응해주고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반에서 수업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각 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실습을 하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들과 인사하는 것이 나름의 힐링 포인트였던 것 같다.

대학교에서는 실질적인 학교 상황과 실제로 쓰이는 지도안 작성 방법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은데 교생실습을 통해서 지도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것 같다.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개별화를 적용하고 어떻게 문제행동을 지도하는지 등 정말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내가 직접 개별화하여 적용해보는 것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학생들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기에 2주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지도교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4주 같은 2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실습을 하면서 나도 어서 빨리 임용에 합격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특수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황준현 - 김해은혜학교

“

- 지도교사 : 학교 전반적인 문화는 실습생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지도 선생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짝 교사 : 다른 학교의 짝 교사와 한팀으로 교육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육실습이 진행되기 전에는 짝 교사 배정이 중요하다는 말에 긴장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짝 교사는 좋으면 그만 나빠도 내 수업에 충실하면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짝 교사가 걸리더라도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지도안 : 지도안 작성에 관해서 교육실습을 기점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약안에 관해서는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르게 익숙해 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이라면 특히 중등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모형을 몇 가지 접해보고 지도안을 작성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업 아이디어를 생각한 다음에 교수 학습 모형을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지도안을 작성하였는데 오히려 교수학습 모형을 먼저 정하고 수업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쪽이 더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할뿐더러 창의적인 수업을 생각하기에도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학생 : 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맡는 반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 주는 학생도 있지만 처음보는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더 많이 존재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주제로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학생의 옷차림이나 학급 게시판을 참고하는 방법 또는 지도 선생님께 여쭙보면 학생이 흥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의 수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며 학생들이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 것에 감동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

황준현 - 김해은혜학교

“

- 수업 : 수업은 마음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준비는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지만 본 수업에 들어가서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많은 수업을 본 것은 아니지만 지도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또 직접 수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교사의 목소리와 활기가 수업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직접 수업을 해보면 학생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크고 활기차게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이 가득 찬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학생의 순서를 정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은지 - 부산맹학교

“

나는 내가 나온 모교인 부산맹학교로 교생실습을 가게 되어 걱정 반 기대 반인 마음으로 교생 오티를 가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실습 기간이 2주여서 오티 날부터 바로 담당 반을 배정받고 지도 선생님을 만나 내가 가르칠 학년과 그 반 학생들의 장애 유형 및 특성 설명을 듣고 교사용 지도서를 받아왔다. 실습 기간이 2주이다 보니 교생 첫날부터 바로 수업을 들어가야 했기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첫날 학교를 가 첫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업을 너무 못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하며 겨우 45분에 맞게 수업을 끝냈었다.

맹학교는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수업을 해보니 반마다 있는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된 수업을 하는 게 더 큰 과제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공통교육과정으로 공부하는 순수 시각장애 학생들과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려다 보니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무원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학생들끼리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맹학교에는 안마사 자격증을 따러 전공과에 입학한 과령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고등부에도 고령 학생들이 있는 반이 한 반 있었다. 그 반의 평균 연령대는 60대였는데 과령 반에 들어가 일제강점기의 문학 작품을 가르치려니 다른 반 수업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긴장이 되었지만, 작품에 대한 몰입도와 깊은 감상을 하는 고령 학생분들을 보며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색다른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동료 교생선생님들이다. 교생선생님들 중에는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선생님이 있어서 여러 수업을 참관하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수업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양영근 - 부산한솔학교

“

처음 교생 실습을 갈 때 2주밖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원래라면 한 달이나 가야할텐데 2주나 줄었다면서 좋아했지만 실제로 온 한솔학교의 2주간 실습생활은 바쁘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바쁘고 힘든 만큼 보람차고 좋은 기억들로 넘쳐난다. 오히려 한 달을 다 하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선생님들도 유아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2달정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원래 한 달동안 하던 실습생활을 2주로 줄이니 많은 점이 바뀐 것 같다. 맨 처음으로는 라포형성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들었다. 이제야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고 좋아해주며 찾기도 하는데 나에게 남은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더 친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럴 시간과 여유가 한 달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아쉬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의 변화가 아쉬웠는데 실습 기간이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 날부터 연구수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수업을 짜야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행동 특성은 어떤지, 아이들의 강점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업을 생각하고 학습목표를 정한다는게 아쉽다고 생각했다. 아쉽긴 해도 좋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우선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다. 장애 유아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잘 없고 자신이 직접 찾아다니지 않으면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본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됐고, 또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요새 누리과정이 바뀌고 선생님들의 수업을 직접 볼 기회가 없어서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반을 구성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유아중심으로 교육을 하나 너무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 수업을 참관하고 설명해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주시고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지 생각해주시고 학교가 끝난 시점에도 연락해주시면서 격려해주시고 피드백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많이 감동받았다. 한솔 학교에 봉사자도 한 번씩 오고 싶다고 생각하고 내년엔 후배들이 또 교생을 간다면 한솔 학교를 추천해주고 싶다.

”

양영근 - 부산한솔학교

“

마지막으로 다음 교생을 가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다른 것을 배우고 자신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뭘 해야될지 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선생님, 짝교생, 선배, 교수님 등 모두가 도와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1번 밖에 할 수 없는 기회에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가는 친구들은 자신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억에 남는 교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인 - 부산한솔학교

“

2주 동안 실습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재학 중 유아 특수 현장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실제 현장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실습을 다녀 온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실습 가기 전 미리 체력을 관리하고 길러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아들과는 몸으로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나 활동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체력을 관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수업을 통해 배우는 내용들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학과 수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현 - 부산혜성학교

66

1. 교생실습을 가기 전 마음가짐

교생실습을 가기 전 나의 유일한 다짐은 '교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말자.'였다. 나는 변덕이 심한 성격 탓에, 같은 과 동기들과는 달리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또 다른 길을 찾게 되지는 않을 까 걱정을 했고, 그 결과 별 것 아닌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

2. 배운 점과 느낀 점

첫째, 첫 번째 주에 첫 수업을 하고 든 생각은 '나는 교사가 될 자격이 없구나.'였다. 우리 반 학생들과 1교시 동안 청소를 하고 다음 2교시에 수학 수업을 했다. 청소를 할 때 몇몇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전혀 되지 않았고, 청소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수학 시간에는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 수준' 학생은 너무 쉽다고 불만을 표현하였고, '다 수준' 학생들과도 원활한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았다.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2시간 동안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관찰하시고 피드백을 해주셨다. 지도교사 선생님의 피드백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피드백을 통하여 내가 학생들에게 "~하세요."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등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볼까요?"라고 부드럽게 권유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도하는 태도로 바꿨고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둘째,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장 힘들었다.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할 때 수업 활동 구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흥미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려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 또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별화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수업에서 내가 수업을 할 때 "선생님, 재미없어요. 저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라고 하는 한 학생의 말에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 나는 무조건 지나치게 열심히 하였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적당히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학생들을 떠올리며 수업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즉 라포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라포 형성이 정말 잘 되었다고 느꼈을 때 쯤 실습을 마무리 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웠다.

99

이동규 - 부산혜성학교

“

학교라는 현장에 실습을 나가기 전에 저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교실에서 직접 교육하는 교사를 직접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 한편 불안감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게 빠르고 직접 해보아야 알게 된다.’ 이전에 학교현장에서 실습을 다녀온 동기, 선배들의 말을 듣고 가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습 기간이 2주로 제한이 된 것이 처음엔 좋아 보였지만 실습 일정을 받게 된 이후에는 걱정이 찾아왔고 실제로 실습을 할 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인 실습은 4주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줄여든 기간 내에 4주 내용을 넣으니, 이 작성된 계획에 따라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성공적인 실습을 위해서 계획에 따라 미리 제가 하게 될 것을 미리 미리 준비했습니다. 일정에 따라 실습 날이 다가왔고 학교에서 실습이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강의실에서 이론, 말로 듣던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전개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약 3~4일 안에 학생들을 파악해야 했었는데, 담당 선생님과 같은 수업 시간에만 참석이 가능했고 그 외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일지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으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음 주는 교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수업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고 병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고 짝 교생과 서로 돕고 도움을 받다보니 어느 순간 교생이 끝나있었습니다.

저는 후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나면 상대가 누구든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두 번째,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더욱 안 좋은 것이니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

이동규 - 부산혜성학교

“

세 번째,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교생실습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진로나 적성이 특수 교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곳에 가서 당신의 교육 실습생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하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본인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그 고통과 위험이 당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

이도현 - 부산혜성학교

“

교생을 나가기 전에는 정말 많이 떨리고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많이 참관하고, 또 지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지도안을 작성 해보면서 첫 주는 수업에 대해서 알아가고, 수업방법을 많이 구경하면서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수업 일정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주차부터는 직접 수업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얻는 피드백을 통해 내 수업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더 보충해야 할 점을 듣고 하다 보니 점차 수업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지도서를 보는 방법, 수업을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었다. 교생이 끝날 때에도 완벽하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교생 때 했던 고민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생을 나가서 지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들은 피드백은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교생이 다 끝난 이후에 생각해보니 교생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지도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재구성하며, 약안과 세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만 알아두어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수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고쳐나가기만 해도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것 같다.

”

김찬미 - 부산혜성학교

“

인제대 특수교육과에 입학한 순간부터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교생실습을 드디어 다녀왔다. 1학년 때는 교생실습을 나가는 선배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커 보였는데, 막상 내가 교생실습을 나가는 4학년이 되어보니 4년의 세월이 다 어디로 흘러가 버렸는지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작아 보였다. 교생실습을 나간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과연 수업 지도안이나 제대로 짤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도 컸다.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교육 실습은 2주 동안 진행되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줄어든 실습 기간은 너무나도 아쉬웠다. 교육 실습의 중요성과 그 속에서 얻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 내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다. 비록 2주지만 4주만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시도해보겠다는 마음을 품고 실습을 시작했다.

처음엔 매우 혼란스러웠다. 실습 기간이 줄어든 만큼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할 시간도 부족했고 나 자신 또한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 매시간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내 첫 수업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나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고, 교구의 제시와 회수 방법이 뒤죽박죽이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수업은 그동안 대학교 수업에서 과제로 했던 수업 시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수업을 여러 번 해보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수업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나는 재미있는 수업, 학생이 흥미 있어 하는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왔다.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가 있어야 활동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는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의 수업을 해보고, 지도 선생님과 대화의 통해 좋은 수업은 물론 재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목표가 확실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배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수업에서 각 학생이 얻어야 할 내용을 확실히 명시해주고 충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인 것이다.

”

김찬미 - 부산혜성학교

“

실습 기간 동안 정말 좋은 수업관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

수업을 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렇게나 부족한 교육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해 주고, 따라주고, 함께해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크고 동시에 더 좋은 수업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다. 지금의 마음과 다짐을 잊지 않고! 이 마음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특수 교사가 되고 싶다.

”

임진숙 - 부산혜성학교

“

[교육실습 전]

먼저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정말 설렘 가득했지만 반면에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관찰실습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되었던 것 같았다. 또한 석가탄신일이 있어 직접 실습의 기간이 2주지만 실제로는 9일이라고 생각하니 매우 아쉬웠다.

다음으로 부산혜성학교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OT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나 이번에는 ZOOM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학교 소개와 내가 맡을 학년과 지도 선생님 그리고 짝교생 선생님을 알려주셨으며, 초등에는 대구대, 부산대, 가야대, 인제대 총 4개의 학교에서 교육실습생이 왔었고 짝교생 선생님은 모두 다른 학교의 교육실습생으로 연결해주셨다. 따라서 나는 1학년을 맡게 되었고 짝교생 선생님은 부산대학교 교육실습생이었다. 더불어 수업연구의 일시와 실습과제물에 대한 안내와 교육실습 기간의 일정이나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

[교육실습 중]

4주의 일정을 2주로 축약한 것이어서 월,화,목 3일 동안 지도교사의 수업 참관을 들어가고 금요일부터 교육실습 끝날 때까지 매일 1개의 수업을 진행하며 엄청 바쁜 2주를 보냈다.

먼저 하루의 일정을 이야기하자면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기에 8시 30분까지 교문으로 나가 등교 지도를 하면서 하루를 맞이하였고, 오전에는 만약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수업 참관을 오라고 하시면 들어가서 참관을 하고, 그 외에는 특강이나 초등연구실에서 교재연구 및 수업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점심은 코로나로 인해 1학년을 반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반에서 식사지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후에는 창체 시간이라서 수업 참관 없이 교재연구를 하거나 연수 혹은 특강을 들었다.

다음으로 수업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1학년을 국어, 수학, 통합교과를 진행하는데 국어는 전담 교과 선생님이 따로 있어서, 수업을 원하면 해도 되나 되도록 수학이나 통합교과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수업은 선생님이 원하는 단원과 차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

임진숙 - 부산혜성학교

“

[교육실습 후]

다른 학교는 교재연구비가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부산혜성학교는 따로 교재연구실에 대해 부분 구비가 되어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다행복학교라서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회를 참관할 수 있어서 좋았다. 거의 1-2시간씩 자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고 수업을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지만 이러한 교육실습을 통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개별화에 대해서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과 지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2주였다. 마지막으로 만약 교육실습 전에 이 글을 본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수업 부분에서는 학생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준별 개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연구수업 부분에서는 수업 실습을 통해서 연구수업을 할 차시의 전 차시를 직접 해보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생활 부분에서는 지도 선생님과 실무원 선생님의 관계 형성 그리고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라포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

김찬수 - 양산희망학교

“

교생을 가기 전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교생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였고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이 한 이야기들도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참도 못 잔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할 틈도 없이 시간이 흘렀고 교생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냥 부딪혀보자 였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잘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자고 다짐하면서 교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생을 가서 배운점을 말해보면 일단 특수학교에 처음 가보았는데 어떻게 수업이 흘러가는지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정형화된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시연 같은 수업은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하는 발문 등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말해야 할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여기서 진짜 학교에 있을 때에는 행동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제가 수업 한 것을 보고 발문을 어떻게 해야할지 학생들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안도 선생님들이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착하시고 좋으셔서 저도 편하게 피드백을 받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게 눈에 보인다고 하셔서 더 열심히 다음 수업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이 학교는 1교시마다 강당이나 운동장을 매일 돌았습니다. 그래서 1교시가 마치면 거의 5000걸음을 넘기고 하루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의 담당반에 학생이 총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병원을 가서 안오고 한명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서 학생 혼자서 수업을 받은 것이 기억에 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김찬수 - 양산희망학교

“

사회 담당 선생님 수업이었는데 실무원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3명에서 한 명을 보는 것이 진짜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이 웃겨서 기억에 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을 제가 끝냈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수업을 진짜 진행하였구나 실감이 들면서 심장이 뛰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도움과 힘이 되었던 희망학교에서 만난 동기, 교수님의 진심 어린 응원 덕에 더 힘이 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해주는 따뜻한 말들로 2주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해보고 생각보다 별 일 아니니까 먼저 겁먹지 말고 열심히 배우다는 생각으로 교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지원 - 양산희망학교

“

2주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이기 때문에 일정이 타이트할 것은 예상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업준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특성이나 담당할 학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나는 양산희망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을 맡았고 전 과목을 수업해보게 되었다. 학생들의 수행수준이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소한 과목을 수업하려니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혼자서 생소한 과목을 준비하느라 시행착오를 겪다가 담당 선생님들께 수업하기 전에 찾아가서 미리 조언을 구했었다. 대체로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알려주셨고 그제 수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미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또한 지도서에 나오는 단원·학습 목표를 더욱 잘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활동과 평가까지 일관성 있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최대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교생실습실에 가지 않고 반에 있으려고 했다. 교육실습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동안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다. 그러한 시간 덕분에 학생들의 수행수준이나 특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수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양산희망학교는 연구수업 지도안을 세안이 아니라 약안으로 제출한다. 처음에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연구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도안만 12번 수정하게 되었다.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피드백을 해주셔서 자잘한 부분까지 수정하다보니 꽤 많은 시간을 지도안에 쓰게 되었다. 현장에서 쓰는 지도안은 학부 때 써왔던 지도안과 다른 점이 꽤 있어서 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것 같다.

”

김지원 - 양산희망학교

“

다수의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들으면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다양한 관점으로 수업 제재에 접근할 수 있고, 지도안 쓰는 방법을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선생님의 관점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전부 반영하려다보면 처음의 하고자 했던 수업과는 전혀 다른 수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원목표와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활동의 큰 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반복해서 지도안을 수정하다보니 수업 준비할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불안했지만, 수업흐름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서 연구 수업 당일에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휘몰아쳤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2주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한번 뿐인 교육실습이기에 특별했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

강동열 - 진주혜광학교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실습 기간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5월 초 교육실습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빨리 2주 교육실습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면서 교육실습을 끝내게 되었다.

5월 초에는 교육실습생으로 나간다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점점 그 설렘은 긴장으로 바뀌었고 교생 오티를 나가게 되었다. 인제대학교에서 교육실습생이 5명이 가게 되었지만, 중등은 나 혼자라 더 긴장이 되었던 것 같다. 오티가 끝난 후 지도 교사님을 찾아가 학생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왔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온 것임을 되새기며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렇게 17일이 되어 교육실습 기간이 시작되었고, 학생들을 마주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려갔다. 학생들이 우리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주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직접 수업을 해보는 데도 덜 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지도교사 선생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나와 짝교생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고,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고 내가 고쳐야 할 점들을 고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주셨다.

지도교사 공개수업과 교생 공개수업, 일반 수업참관을 통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2주는 아마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다.

교생 오티 날에 지도교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수업 날짜와 학생들의 특성 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된다. 그 때 수업하게 될 과목의 지도서를 선생님께 부탁드려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일반 수업 및 공개 수업 할 제재를 정하고, 지도안을 대강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수업을 해야 할 때 편하다. 뒤늦게 공개 수업 제재를 정하려고 지도안을 살피면 세안 짜기와 교구 만들기를 할 때 시간에 쫓겨 가면서 급하게 하게 되어 여유가 없다. 짝교생과 빠르게 친해지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서로 지도안을 봐주고, 교구를 만들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교구를 만드는 시간을 줄여야 수업 시연을 연습해 볼 시간이 늘어난다.

”

남윤서 - 진주혜광학교

“

저는 진주 혜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고 교생 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였습니다. 본격적인 교생 실습 전, 오티를 통해 담당하게 된 반을 알게 되었고 지도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남학생 3명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생 기간이 줄어들어 따라 수업 관찰 시수도 줄어들어 교생 시작 후 1~2일 뒤 바로 교생들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티~교생 시작 전까지 자신이 맡은 학년 교과서를 보며 수업하고 싶은 주제, 제제 정도만 선택해놓는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생이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해 간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울며 수업을 하지 않으려는데 정말 그 앞에 교사로서 저는 온몸에서 땀이 나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생 선생님의 수업이라는 것을 알아서 수업을 잘 듣지 않은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첫 수업 이후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며 그다음 수업부터는 지도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많이 구하였고, 이렇게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니 선생님께서도 많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 수업이 끝난 직후 활동 2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앉혀 놓고 활동 2를 직접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희는 현장 관찰 실습이 코로나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학교에 나와 학생들 앞에서 직접 수업하는 것이 처음인데 제 수업을 관찰해 주시는 지도 선생님께서 제가 가진 습관이 뭔지 그리고 제가 하는 발문에 대해 분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도 선생님이나 기타 현장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

남윤서 - 진주혜광학교

“

저희 반은 저 포함 짝 교생 선생님들께서 교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였고 지도 선생님께서도 교생에 대해 열정을 갖고 지도해주신 덕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더라도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가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고, 이제 학생들과 친해졌는데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4년간 배운 것을 실현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고 교생 실습을 하며 교생이 아닌 특수교사로 하루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은 이제 교생을 나가시게 될 텐데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을 간직한 채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실습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모두 파이팅입니다~

”

윤혜민 - 진주혜광학교

“

교생을 갔던 2주는 짧았지만 꿈같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주혜광학교로 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생을 가기 전에 짝 교생은 어떤 분이실지, 지도교사는 어떤 분이실지, 3학년 때 가야했던 현장실습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어 실제 학교에서의 수업은 처음인데 수업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걱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교생실습을 가기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그때에 담임선생님과 짝 교생, 반에 배정되어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교생실습을 시작했던 터라 시간이 부족했지만 나름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고민도 하고 학생들을 만날 생각을 하고 학교로 첫걸음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습기간이 2주로 줄어들어 교사들의 수업과 학생들을 이틀 동안 보고 수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름 많은 준비를 해갔던 첫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교구를 제공하면 바닥으로 던지며 놀기 바빴고, 수업 내용보다 “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했고, 수업이 끝난 후 ‘과연 내가 4년 동안 제대로 배운 것이 맞을까?’, ‘한학기만 더 하면 졸업인데 현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하며 자책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도교사의 피드백과 학생들의 관심분야,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수업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보일 때, 제 수업에서 착석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의 기쁨은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수업에 최선을 다하다보니 2주차에 들어서는 반 학생이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창문에 비친 저를 보고 인사를 해주는 감동을 맛 볼 수 있었습니다.

교생을 가기 전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교생실습을 가서 첫 수업을 하면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

윤혜민 - 진주혜광학교

“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이때까지 수업시연을 통해 정리했던 것을 활용하면 더 좋은 수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시연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시연보다 시간의 제약도 많지만 분명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수업에 더 좋은 집중력을 보입니다.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하고,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속에서 꼭 학생들과 예쁜 추억도 만들고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업을 시도하고 오면 분명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현경 - 진주혜광학교

“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고 학교에 입학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교생 실습을 나갈 학년이 되었다. 입학 때 바라 본 4학년은 저 멀리 있는 듯 했고, 교생 실습은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일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앉은 승객처럼 제 자리에서 과제와 공부로 바쁘게 하루를 채워나가자 시간은 어느 새 졸업이라는 목표의 막바지 정거장에 나를 데려다 놓았고 드디어 그 중 교생 실습이라는 간이역을 마주하게 되었다.

직접 교생실습은 총 2주로 진행되었는데, 첫 날 학교에 간 소감은 학교가 생각보다 작대라는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작은 그 학교의 곳곳에 숨겨진 작은 정원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자 단순히 작다, 라고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큰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교생 실습의 일과는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에 데리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했기에 피곤 해 했던 내가 스쿨버스에 내리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활짝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함께 손을 잡고 교실에 들어가면 하루가 시작되는 데, 첫 주의 3일은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들을 관찰하며 일과를 보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며 ‘내가 과연 저렇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고, 어떤 수업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다양한 수업을 관찰한 후 부터는 교생 수업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학부생 때 동기들과 함께 2주간 준비하던 수업을 이번에는 하루에 하나씩 총 10개를 준비하여 진행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배운 내용들을 이 것 저 것 접목 시키고 싶었던 내 욕심과 달리 수업을 진행하기에 바쁜 현실에 속상하고 아쉬웠다. 그 때마다 실습에 오기 전 지도서를 좀 더 많이 보고, 어떤 수업을 할지 이 것 저 것 고민해 올 걸... 이라는 후회가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시연을 하며 남아 있던 나의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이 여과 없이 수업에 투영되는 것을 체감하며 평소 학교 생활 중 수업 시연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음을 깨달았다.

”

이현경 - 진주혜광학교

“

사소하지만 교수 시 학습 내용에 있어 오류나,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수업 활동을 그 짧은 시기에 챙기고 고민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기에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놨다면 교생 실습 중 수업 진행에 있어 좀 더 양질의 수업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과 나의 부족함을 제대로 깨달았던 과정이었다. 대부분 부족함과 나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 실습 과정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급식 시간, 그리고 일과 외 활동 시간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며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나의 교직 가치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실, 나는 4년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하기 싫다며 대충 하며 지나쳤던 과제들이 종종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교생실습이라는 현실을 통해 부족한 나의 능력과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부끄럽고 속상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통해 나의 부족한 능력을 직시하고 부족한 나를 채우기 위해 교생 기간 동안 오히려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그로 인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생에 오기 전까지는 임용이라는 현실적인 관문에 부딪혀,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면접을 보며 뜨겁게 달궜던 ‘좋은 선생님’, ‘훌륭한 특수교사’에 대한 열정보단 당장의 현실의 할 일에 매여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하며 웃고 있고, 동기들과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 하며 행복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이끌어가고 참여시키기 위해 고민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의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몸도 마음도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보다 배로 더 값진 것들을 많이 배우고 채워나갔던 시간이었기에 앞으로 펼쳐질 나의 교직 인생의 첫 단추인 이 교생실습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나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장민영 - 진주혜광학교

“

선언식을 하는 날부터 교생을 가기 전까지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교생 실습을 기다렸다. 평생 단 한번 뿐일 교생 실습을 지난 3년간 기다려온 만큼 굉장히 설레는 나날들이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의 짧은 실습 기간에 아쉽기도 하였다. 2주가 짧긴 하지만 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2주간의 교생 실습은 정말 눈을 감았다 뜨니 끝나있었다고 할 정도로 숨 가쁘게 흘러갔다.

교생 실습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 뿐만 아니라 같은 짝교생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전날 수업을 준비하고 다음 날 바로 수업을 하는 형태가 매일 매일 반복되었기에 수업을 여태까지 시연처럼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준비할 수 없었는데 이 점이 수업을 하는 나에게 있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었다. 수업을 급하게 준비하다보니 수업을 진행하는 나조차도 수업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으니 수업을 하기에도 급급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았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매 수업마다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짝교생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떤 발문들을 수정하면 좋을지 어떤 점들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첫 번째 수업의 '나'와 마지막 수업의 '나'는 많이 달라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교생 기간 내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행동을 동시에 지도한다는 게 나에게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넘어야 할 산이었는데 좋은 짝교생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덕분에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며 어려움을 많이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교생 기간 동안 담임 선생님과 짝교생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들의 지도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내가 가진 어려움들을 함께 해소해나갈 수 있었다. 짧았던 2주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로 학생들, 선생님들과 정도 많이 들고 많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교생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발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떤 교사로 학생들에게 남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교생 실습 기간이었다.

”

장민영 - 진주혜광학교

“

앞으로 교생을 갈 다른 친구들 혹은 후배들에게 2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을 교생기간과 추억을 만들어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평생 단 한번뿐인 교생실습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교생실습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박진우 - 창원천광학교

66

교생실습 가기 전부터 매우 걱정이 많았습니다. 개인이 교생실습을 하러 가는 거지만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교생실습을 하러 오기 때문에 인제대학교의 대표로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실수하거나 교생실습을 잘하지 못하면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욱더 교생실습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 실습학교에서 예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선생님만 말고 다른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먼저 인사를 해주세요. 두 번째로, 열정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교생실습에서는 개인적인 역량이 차이가 있지만 선생님을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생들의 역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습 나갔을 때, 너무 자기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많은 점 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생을 나가면 수업계획서를 짜거나 실제로 수업을 하면 많은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수업을 구성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도 선생님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니까 피드백을 수용해서 더욱더 좋은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짝 교사와 많은 교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업을 하면 지도 선생님 뿐만 아니라 짝 교사도 같이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 더욱 더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하기전이나 수업을 하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짝 교사와 이야기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용기있게 짝 교사와 얘기를 하세요. 다섯 번째로, 지도서 참고 꼭 해주세요. 물론 자신의 배운 지식이나 하고 싶은 수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기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도서 참고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서 참고하는 부분을 부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꼭 참고해주세요.

99

박진우 - 창원천광학교

“

마지막으로,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이 중요합니다. 비록 짧게 교생실습 하지만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이 잘 되어있으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학생들도 수업에 잘 따라주고 자신이 수업 했을 때 더욱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생실습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교사의 역량이 향상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모두 화이팅!

”

조순향 - 창원천광학교

“

교생을 나가기 전, 학교 현장에 나가 학생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이 있었지만, 두려움과 걱정 또한 동반했었다. 학교현장실습 및 관찰 수업을 통해 사전에 학교 현장을 경험해 더라면 두려움과 걱정이 덜 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학교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하여 특수학교가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져 걱정이 앞섰다.

교육실습 기간을 돌아켜보면 많은 장면이 떠오르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교육실습 첫 날 천광학교 교장선생님의 연수시간인 것 같다. 그 시간에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을 상대로 연습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교육실습기간을 질적으로 바꿔놓은 것 같다. 나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로서 부족한 나의 자질을 확인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고 다짐했는데 그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첫 날 이후로 나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에게 배움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업도 막상 진행해보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주 동안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후회 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교육실습 기간 동안 지도안 작성방법, 학생 문제행동 지도, 수업자료 제작, 수업구성 등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교단에 서서 수업을 진행할수록 특수교사가 되고자 했던 마음이 더욱 커지면서 임용준비에 대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내년에도 교육실습 기간이 2주일지는 모르겠지만 2주가 되었던, 4주가 되었던 그 기간 동안 후회 없이 학생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고 오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어떤 자료와 방법이 좋을지 많이 고민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조순향 - 창원천광학교

“

또한 학교 수업에서 실시하는 수업시연에서 교사역할을 되도록 많이 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나 또한 시연 시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꺼려져 무조건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교육실습을 다녀오니 교사를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는 학생일 때 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시연에서 교사를 맡아 받게 되는 동기들의 피드백 및 발표상황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 것을 기회삼아 자신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장점은 최대한 발휘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4학년 교육실습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박성언 - 창원천광학교

“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실습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실습은 코로나로 인해 실습 기간이 2주로 단축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슬슬 실습에 적응해지려고 하니 끝났던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천광학교 측에서 실습생들을 배려하여 최대한 많이 경험하도록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등특수를 전공하였기에 고학년에 국어과목으로 배정 받았었습니다. 창원천광학교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 참고할 만한 점 등을 간략하게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실습 기간 동안 해야 했던 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실습일지와 각 학교별 과제로 나뉩니다. 천광학교에서는 PBS와 수업 약안, 세안 등을 작성하여 천광학교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실습일지 같은 경우는 지도 교사의 확인이 필요하기에 그 날그날 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PBS는 짝교생과 같이 작성하니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수업 지도안은 지도 교사께서 정말 세세하게 보셨기 때문에, 3~4번은 수정했습니다. 지도안 샘플 등을 모아두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당 과제들이 수업 준비와 엮이다보니, 항상 시간에 쫓겨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과제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준비입니다. 실습을 나가기 전, 어떤 학년에 배정받을지, 어떤 학생이 있을지, 무슨 과목을 할지 모르기에 미리 수업 구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습을 하게 되면 여유가 없었기에, 미리 수업 아이디어 정도라도 구상해두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지도 교사의 표시수업인, 국어와 창체 시간에 실습을 들어갔습니다. 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진도에서 짝교생과 파트를 나누어 수업을 맡았고, 창체는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수업준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학생 특성에 맞게 적절한 수업을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개별 교재교구도 제작해야 하고,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연구수업의 경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지도 교사 분께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고, 그만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말부터 더 일찍 꼼꼼히 준비했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수업이 되었을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박성언 - 창원천광학교

“

고작 2주였지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과제와 수업준비를 위해 밤을 새는 일도 많았고 유일한 휴식시간은 식사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학부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의 분위기와 학생과의 라포 형성 등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저에게는 이번 실습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